출새곡[1] 전문

북방(北方) 이십여 주(二十餘州)[2]에 경성(鏡城)[3]이 문호(門戶)ㅣ러니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날을 맛겨 보내시니
망극(罔極)ᄒᆞᆫ 성은(聖恩)을 갑플 일이 어려웨라[4]
서생(書生) 사업(事業)은 한묵(翰墨)인가 너기더니
백수(白首) 임변(臨邊)이 진실노 의외(意外)로다[5]
인정전(仁政殿)[6] 배사(拜辭)하고 칼흘 집고 도라셔니
만 리(萬里) 관하(關下)의 일신(一身)을 다 닛괘라[7]
흥인문(興仁門)[8] ᄂᆡᄃᆞ라 녹양(綠楊)[9]의 ᄆᆞᆯ을 ᄀᆞ니
은한(銀漢) 녯 길흘 다시 지나 간단 말아[10]
회양(淮陽)[11] 네 ᄉᆞ실 긔별만 드럿더니
금달(禁闥)[12]을 외오 두고 적객(謫客)[13]은 무슴 죄고[14]
참암(巉巖) 철령(鐵嶺)[15]을 험튼 말 젼혀 마오
세도(世道)[16]를 보거든 평지(平地)ㄴ가 너기노라[17]
눈믈을 베ᄲᅳ고 두어 거름 도라셔니
장안(長安)[18]이 어듸오 옥경(玉京)[19]이 ᄀᆞ리거다
안변(安邊)[20] 이북(迤北)은 져 즘ᄭᅴ 호지(胡地)러니
신소(迅所) 성전(腥膻)ᄒᆞ야 벽국(闢國) 천 리(千里)ᄒᆞ니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이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이니,
군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나에게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서생(=유생)이 하는 일이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이라 여겨왔는데,
나이가 들어 변방에서 임무를 맡는 것이 진실로 의외로다.
인정전의 웃어른께 인사를 하고 칼을 집어 들고 돌아서니
만 리 밖 국경에 있는 요새의 일신을 다 잊겠구나.
흥인문을 내달아 녹양에서 말을 갈아타니
은하수 옛 길을 다시 지나 간단 말인가?
회양의 옛 사실에 대해 소식만 들었는데
금달을 외로이 두고 적객은 무슨 죄인가?
참암철령이 험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마시오
세도를 보니, (차라리) 평지가 여기노라
눈물을 쏟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장안이 어디인가 옥경이 가리었구나.
안변 이북은 저기쯤 오랑캐가 사는 땅이니,
비린내와 노린내 나는 오랑캐들을 빨리 쓸어내어 국토를 넓힌 것이 천 리이니,

---

1) 왕명을 받고 부임지로 떠나는 상황을 '변경으로 나간다'고 표현한 제목에서부터, 부임지로 향하는 기대감, 혹은 책임감 보다는 '변방 지역'으로 향하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부각된다.
2) 신라시대~조선시대에 있었던 지방의 행정 단위(주-군-현)
3) 함경북도 중앙에 위치한 경성군
4) (후술될 직책에 대한 화자의 내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임금이 임무를 맡긴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음.
5) '진실로 의외'라는 말은 변방으로의 부임이 썩 내키지 않는 시적 화자의 내심이 드러난다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은 '한묵'해야 하는 서생으로서의 본분과 변방에서 칼을 차고 '치병목민'해야 하는 직무의 모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6)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이 소실되었고, 광해군 즉위 이후부터는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이 정무를 봤음.
7) 북방의 요충지에서 소임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음.
8) 동대문
9) 경기도 의정부 인근의 고을 이름
10) 과거의 유명인이 지나간 적이 있는 유명한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시적 화자는 이 유명한 길을 걸으면서 감상에 젖어 있음.
11) 강원도 고을 이름(금강산이 있는 곳)
12) 궐내에서 임금이 평소에 거처하던 궁전의 앞문,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을 대유하고 있다.
13)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14) 시적 화자는 강원도 회양에 이르러, '급암(汲黯)'의 일화를 생각하고 있다. 급암은 중국 전한의 무제 제위 중 무제에게 총애를 받았었는데, 무제에게 직언을 계속하다가 결국 무제에게 버림 받고, 회양태수라는 한직으로 좌천된다. 이 고사에서 회양은 중국 지명이지만, 지명의 한자까지 조선 강원도 회양과 똑같다. 시적 화자는 이 일화를 통해, '적객(=급암=변방으로 부임하는 시적 화자)'의 답답한 심사를 토로 하고 있는 것이다.
15) 참암은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바위' 이고, 철령은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6)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
17) 시적 화자는 문관인 본인이 변방의 판관으로 부임하는 상황이 세도(=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세도정치가 아니고, 당시집권하던 북인들의 전횡으로 봐야함)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셈이며, 이 세도가 '참암철령'보다 더 험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8) 중국 당나라의 수도, 여기서는 도성을 가리킴
19) 옥황상제가 사는 곳, 여기서는 궁궐을 가리킴
20) 함경도의 고을명

윤관(尹瓘)[21] 김종서(金宗書)[22]의 풍공(豊功) 위열(偉烈)을
초목(草木)이 다 아ᄂᆞ다 용흥강(龍興江)[23] 건너 드러
정평부(定平府)[24] 잠깐 지나 만세교(萬歲橋)[25] 압희 두고
낙민루(樂民樓)[26]희 올나 안ᄌᆞ 옥저(沃沮)[27] 산하(山河)를
면면(面面)히 도라보니 천년(千年) 풍패(豊沛)[28]예
울창(鬱蒼) 가기(佳氣)ᄂᆞᆫ 어제론덧 ᄒᆞ여셰라[29]
함관령(咸關嶺)[30] 져문 날의 ᄆᆞᆯ은 어이 병이 든고
만면(滿面) 풍사(風沙)의 갈 길히 머러셰라
홍원(洪原)[31] 고현(古縣)[32]의 천도(穿島)ᄅᆞᆯ ᄇᆞ라보고
대문령(大門嶺) 너머 드러 청해진(靑海鎭)에 드러오니
일도(一道) 후설(喉舌)이요 남북(南北) 요충(要衝)이라
신신(信臣) 정졸(精卒)로 이병(利兵)을 베퍼시며
강궁(强弓) 경노(勁弩)로 요해(要害)ᄅᆞᆯ 디킈ᄂᆞᆫ ᄃᆞᆺ

윤관 김종서의 큰 공훈과 위대한 업적을
초목이 다 안다 용흥강 건너 들어가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 앉아 옥저 산하를
면면히 돌아보니 천년 풍패에
울창한 자연의 상서롭고 맑은 기운은 어제인듯 하구나
함관령 저문 날에 말은 어찌 병이 들었는가
온 얼굴에 부는 모래바람을 맞으며 갈 길이 멀구나.
홍원 고현의 구멍이 뚫린 바위섬을 바라보고
대문령 넘어 들어가 청해진에 들어오니
매우 중요한 길목이요, 남북의 요충이라.
충성심이 강하고 우수한 군사로 예리한 병기를 보급받았으며
강하고 튼튼한 활들로 군사적 요지를 지키는 듯 하구나

(중략)

(중략)

소화(韶華)도 그디업고 풍경(風景)이 무진(無盡)ᄒᆞ니
일춘(一春) 행락(行樂)이 슬믜염즉 ᄒᆞ다ᄆᆞᄂᆞᆫ[33]
향관(鄕關)을 ᄇᆞ라보니 오령(五嶺)[34]이 ᄀᆞ려 잇고
이지(異地) 산천(山川)은 육진(六鎭)[35]이 거의로다
명시(明時) 적관(謫官)[36]이 도처(到處)의 군은(君恩)이로ᄃᆡ
원신(遠身) 금전(金殿)을 뉘 아니 슬허ᄒᆞ며
중입(重入) 수문(修門)을 어이ᄒᆞ여 기필홀고[37]
평생(平生) 먹은 쓰디 젼혀 업다 홀가마ᄂᆞᆫ
시운(時運)의 타시런가 명도(命途)의 ᄆᆡ엿ᄂᆞᆫ가
진대(秦臺) 백수(白首)의 세월(歲月)이 쉬이 가니

봄의 화창한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다하지 않으니
봄을 즐기며 다니는 일이 싫증난 듯 하다마는
고향을 바라보니 다섯개의 고개가 가려 있고,
낯선 곳의 자연은 육진과 매우 가깝구나
명시적관이 이른 곳에 임금의 은혜가 있으나,
몸이 궁궐과 멀리 떨어져있음을 누가 아니 슬퍼할 것이며
다시 대궐로 돌아감을 어찌하여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할 것인가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운수의 탓인가, 운명과 재수에 매였는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늙는 줄 모를 정도로 세월이 빨리 흘러가니,

---

21) 여진 정벌한 고려 시대 장군
22) 6진(함경북도에 있음)개척 한 조선 세종시대 장군
23) 함경도에 있는 강
24) 함경도의 고을(함흥 남쪽 고을) ebs 사용설명서에는 평안도 정주라고 나와있으나, 이게 평안도 정주면 이 시적화자가 홍길동이라는거냐? 동에번쩍 서에번쩍하게;;;
25) 함경도 함흥 성천강에 있던 다리
26) 함흥의 누각
27) 함흥 일대에 있었던 고대 국가
28)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인 '패군 풍현'을 지칭하는데, '풍패'라는 말은 한 국가의 건국 시조의 고향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함흥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향으로 '풍패'라 지칭 할 수 있다.
29) 시적 화자는 부임지로 가는 중에 함흥 일대를 돌아보며 태조 이성계의 상서로운 기운이 살아있는 이 지역의 위용을 표현하고 있다.
30) 함흥 동쪽 고개
31) 함경도의 고을
32) 함경도의 고을
33) 경성에서 봄을 맞이하는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경성으로 오는 과정을 서술한 부분에서 내재된 내적 갈등으로 인해 봄이 와도 춘흥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시적 화자의 마음은 '소화가 그지 없는' 경성에 없고, 본인의 고향(=경상북도 예천)에 있다. 여기서 '오령'은 고향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서 제시된다.
35) 동북 방면의 여진족 침입에 대비하여 두만강 하류 지역에 설치한 여섯 개의 '진'(=군사적 요충지)
36) 문명이 발달한 평화로운 세상에 잘못을 저질러 좌천된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시적 화자는 본인을 '적객'(=귀양살이 하는사람)으로 다시금 규정하고 있다.
37) 궁궐에서 멀어진 스스로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으며,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 관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탄식을 하고 있다.

초택(楚澤) 청빈(靑蘋)은 원사(怨思)도 한 제이고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 닛댜 ᄒᆞ니
동명(東溟)을 다 퍼내다 이내 시름 어이 홀고
어부(漁夫)ㅣ 이 말 듯고 낙ᄃᆡ를 둘너메고
ᄇᆡ 쪈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말[38]이
세사(世事)를 니젼디 오라니 몸조차 니젼노라
백사(百事) 생애(生涯)ᄂᆞᆫ 일간죽(一竿竹)ᄲᅮᆫ이로다
백구(白鷗)ᄂᆞᆫ 나아 버디라 오명 가명 ᄒᆞᄂᆞ다

유배지에서도 변치 않는 충성심은 원망의 생각도 한 때이고
이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동해물을 다 퍼낸다고 한들 이 내 시름을 어찌 할까.
어부가 이 말을 듣고 낚싯대를 둘러메고
배의 양쪽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이,
세상일을 잊은 지 오래이니 몸조차 잊었구나
온갖 일을 겪어가며 살아가는 삶에서 대나무 지팡이(=낚싯대) 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왔다 갔다 하는구나.

38) 이하 3행에 걸쳐 제시되는 어부의 노래는 시름에 빠진 시적 화자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으며, 이 노래를 통해 시적 화자는 세상사(=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관직을 하는 현실)를 잊고 주어진 현실에 안분지족하고 살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